

분섬 방적사 'New TS'

KB스즈키가 생산하고 있는 순면사 'TS'는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순면사의 품질이 더욱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기존의 TS사와 거의 같다고 한다. 품질이 향상되면 당연히 저꼬임사나 편성용 방적사 등 사종도 다양화될 수 있다. 동사는 기존 TS사보다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판매전략을 세운 것이다.

현재 타월 산지에서는 이미 KB스즈키의 'New TS'사의 설명회를 마친 상태이며, 다른 타월 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New TS가 금년 면사 시장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New TS사는 20수 및 30수의 정번수로 생산되며, 수입품과 완전히 경쟁하는 품목이다. 가격은 수입사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월업계 등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소재로 되고 있다. 타월시장에서 TS 투입량은 지금도 월간 5,000고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TS사의 가격대비 성능비가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KB스즈키사는 작년 원래 높은 TS사의 가격대비 성능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적기술을 확립하였다. 면방적기술 분야에서 오래간만에 나온 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다분섬 합연 방적법' (이하 분섬 방적)이라고 하는 방적기술이다.

2014년 2월에 개최된 'Japan Yarn Fair'에서 동사가 그 개요를 패널 등으로 소개하였고, 많은 방문객이 부스를 방문하였다.

TS사의 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비밀은 조사(로빙)를 만드는 조방공정을 생략하는데 있다. 섬유속을 조사로 만들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정방기에 보내어 TS사를 제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적방법을 채용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조방공정을 생략하면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TS사의 높은 비용 경쟁력이 되고 있다.

분섬 방적법은 이러한 제법을 좀 색다르게 구사한 것이다. 섬유속을 그 상태 그대로 정방기에 보낼 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러한 섬유속을 정방기내에서 2본, 혹은 4본, 6본으로 분할하여 이것을 꼬임을 주면서 다시 1본의 실을 만드는 것이다. 연사에 의해서 생산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정방단계에서 발현시킨 것이다.

정방교연법과 유사하나 복수의 섬유속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로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본의 섬유속을 일단 분할한 후에도 1본의 실을 정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현되므로 실 단면이 원형에 보다 가깝게 되고, 벌키감, 소트감이 증가한다. 또한, 모우가 적고, 모우탈락도 감소한다. 20수 단사의 저연사를 일본 타월검사협회에서 시험한 경우, 1 인치간의 꼬임수가 13회(표준 실은 18회)인 분섬 방적사의 탈모율은 0.159 ~0.161 %, 12회의 실은 0.133~0.136 %이었다.

기존 TS 20수 단사와 동일한 원료, 동일한 꼬임수의 분섬 방적사와 비교한 경우에도 모우지수는 42 %가 낮고, 평균 사강력은 5.2 %, 최소 사강력은 11.1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력은 실제로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1본의 섬유속을 2개로, 4개로, 6개로 간단히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료, 동일한 번수에 서 성능이 다른 실을 방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B스즈키는 저꼬임의 한계를 초월한 저꼬임사나 기존보다도 균제도가 더 향상된 편성용 방적사도 상품화하였다. 이러한 신제품을 포함한 New TS사를 기존의 TS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양산은 6월 초에 시작되어 최근에 출하가 시작되었다.

♠ 일본 섬유뉴스(2014. 6.27)